

대한민국의 가을은 광양 망덕포구로 온다

가을의 은빛 유혹, 무더위로 잃은 입맛 되찾아 줄 망덕포구 가을 전어

광양시가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섬진강 망덕포구로 떠나는 가을 마중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을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광양 망덕포구로 팔딱팔딱 뛰어들어 오면서 시작된다.

망덕포구에서 건너 올린 전어는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의 빠른 물살에 따른 활발한 운동량으로 탄탄한 육질과 풍미를 자랑하며 무더위에 잃은 입맛을 되찾아 준다.

아울러 갈수록,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 등이 풍부해 뼈 성장이 필수인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온 가족 가을 먹거리다.

썩썩썩 씹는 전어회, 새콤달콤한 전어회무침, 왕소금을 뿌려 노릇노릇 구워낸 전어구이 등 전어는 요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과 식감으로 취향을 저격한다.

전어라는 이름에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 먹어 만둣맛이 있다는 뜻에서 錢魚(전어), 머리부터 버리지 않고 모두 다 먹을 수 있어서 全魚(전어) 등 다양한 뜻을 담고 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머리에 깨가 서 말’, ‘가을 전어 한 마리면 햅쌀밥 열 그릇 죽인다’ 등에는 풍자와 해학이 넘친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망덕포구가 아니라



라도 전어가 생산되는 곳은 늘고 있지만, 망덕포구의 수려한 풍광과 뛰어난 풍미는 따를 수 없다.

망덕포구는 전라좌수영 주둔지로 배를 만들었던 선소가 있었던 역사 공간이자 시인 윤동주의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문학의 성지로도 이름이 높다.

포물선을 그리는 포구를 따라 느리게 걷다 보면 전어를 형상화한 별해는다리야 단순미가 돋보이는 해맞이대리로 연결된 배알도 섬 정원이 동그마니 띠 있다.

수변과 포구를 잇는 낭만 플랫폼의 대명사가 된 배알도 섬 정원은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반짝이는 별빛 야경으로 종일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마침내 바다와 만나는 망

덕포구는 가을의 관문이자 숨 가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힘을 선사하는 곳”이라면서 “싱싱하고 고소한 전어가 팔딱거리고 포구와 섬, 시와 낭만이 흐르는 광양에서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을의 대표축제 제24회 광양전어축제가 내달 12일부터 ‘별 해는 밤, 전어가 전하는 바다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망덕포구 일원에서 사흘간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전어맨손잡기체험, 광양전어가요제, 진월 관광스텝 투어, 전국 초등학생 대상 백일장·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축제 개최 이래 처음으로 해상 전어잡이 시연이 예정돼 있어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국가정책 발맞춰 RE100 국가산단으로 만들겠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RE100 산단 지정 추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RE100 산업단지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 전력 전환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7월 RE100 산단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 규제 완화 등 RE100 산업단

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 다양한 전력 공급 방식을 검토 중이며, 우선 지역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 활용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 활용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RE100 산단에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 봉래면에 조성 중인 약 152만㎡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예타 면제를 받았으며, 올해 6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며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향후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모든 군민에게 안전을” 가스스타이머콕 보급 대전환

강진군 조례 통해 지원대상 대폭 확대 취약계층부터 일반가구까지

강진군이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을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가구까지 전면 확대한다.

군은 지난 6월 강진군 가스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 군민의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에 한정됐던 보급 대상이 일반 가구까지 확대된다.

가스스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강진군은 수년 전부터 고령자와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를 통해 화재 예방 효과를 확인해 왔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8월 한 달간 사업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스사용 가구 및 시설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단, 고무호스 배관 사용 가구는 제외되며, 지원은 1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지원 방식은 취약계층 가구는 전액 보조, 일반가구는 설치비의 80%를 보조해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군은 8월 말까지 접수된 결과를 바탕으로



로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순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경숙 강진군의원은 “가스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가스스타이머콕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곡성군, ‘전남 한 달 여행하기-곡성편’ 참가자 모집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전남 한 달 여행하기 - 곡성편’ 참가자를 오는 8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도와 광주광역시와 지역 거주 여행자가 곡성을 중심으로 전남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실질적인 여행 경비를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 중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SNS를 통해 곡성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여행 기간은 8월부터 11월 사이 7~10일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남 22개 시·군 전역을 여행할 수 있으나, 곡성

군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곡성에서 진행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에는 ‘남도여행길잡이’ 누리집에 여행 후기를 작성하고, SNS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필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lady511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성군 “전국 동시 ‘일본뇌염’ 경보... 집중 방역 추진”

취약지역 주 2회 방역소독... 예방접종, 예방수칙 준수 중요

장성군이 일본뇌염 감염 방지를 위해 집중 방역과 유충 구제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 경련, 혼수 등 중증 뇌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데 따라, 장성군은 감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모기 장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수구, 정화조 등 유충 서식도 빈틈 없는 방역을 시행 중이다.

예방백신 접종도 병행되어야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대상이며, 해외 풍토병 지역 방문 예정자

등 고위험군 성인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 예방접종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접종 일정 및 의료기관 안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평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야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밝은색 긴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귀, 목, 발목 등 피부가 노출되기 쉬운 곳에는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가정 내 방충망도 뚫린 곳이 없도록 정비해 둔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복 80주년 기념, 장흥서 태극기 나눔행사 열려

광복회 회원, 장흥군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다

광복회 전라남도지부 중부연합지회(회장 양동철)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장흥 장남인 12일 장흥 토요시장 일원에서 태극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고, 주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행사에는 광복회 회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장흥군민과 시장 상인, 방문객들에게 태극기 100개를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만세삼창이 울려 퍼지며, 광복의 감격과

애국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양동철 광복회 중부연합지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 선열들의 뜻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 모두가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해 애국심을 실천하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광복회와 봉사자들의 뜻깊은 활동에 감사드리며, 태극기와 함께하는 일상이야말로 보훈의 첫걸음”이라며 주민 참여를 당부했다. /장흥군 제공

구례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전남 구례군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관절·손상 위

험도, 폐질환, 농약중독 등 5개 분야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전문의 상담 및 부상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검진 대상은 구례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1955년 1월 1일~1974년 12월 31일)으로, 검진

비 22만 원 중 90%를 군에서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2만 2천 원이다.

신청은 선착순 150명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검진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활기찬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